

호랑이굴, 지원이도 오고...진우도 오고...



13일 삼성과의 경기 전 KIA 선수들은 “끝나고 기분 좋게 은퇴식을 하자”고 서로 각오를 다졌다.

타이거즈맨으로 시작해 팀을 떠나지 않았던 유동훈과 김상훈 두 사람을 보내는 선수들의 각별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KIA 선수들은 이날 약속한대로 환한 웃음으로 승리를 기뻐하며 타이거즈의 역사에 남은 두 사람을 떠나보냈다. 2009년 특급 마무리와 주장이자 안방마님으로 V10을 이끌었던 두 사람. ‘V10 배터리’의 은퇴식 날 2009년 우승을 확정지던 날처럼 극적인 홈런도 나왔다. 2009년 끝내기 홈런을 날렸던 나지완이 두 선배들을 위해 결승 홈런을 날렸다.

나지완에게도 팀에게도 의미가 있는 한방이었다. 팀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선수. 나지완을 살려내기 위해 김기태 감독은 1번 타자 기용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하며 애를 썼다. 13일에는 원래 자리인 4번 타자 자리에 다시 나지완의 이름을 써넣으며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1회 첫 타석이 그의 무대가 됐다. 나지완은 연속 볼넷으로 만들어진 1사 1·2루,

풀카운트 상황에서 삼성 장원삼의 몸쪽 직구를 담장밖으로 넘기며 그라운드를 돌았다. 한 번에 3점을 쓸어담은 나지완은 홈을 밟은 뒤 가장 먼저 김 감독의 손을 부여잡았다. KIA의 계속된 리드 속에 경기가 7-4 승으로 끝나면서 나지완의 선제 홈런은 결승 홈런이 됐다. 침묵의 4번 타자가 2009년 영광을 함께 했던 두 선배의 은퇴식날 터트린 시원한 홈런.

나지완은 “경기 전에 기분 좋게 은퇴식을 하자고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했고, 두 선배들에게 ‘제가 한번 칠게요’라고 했는데 좋은 선물을 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그동안 팀에 너무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했다. 홈런을 치고 나서 나도 울컥했다.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도약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야구가 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사람들의 걱정이 동정으로 느껴질 정도로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팀이 5할을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죄송하다. 타이밍이 괜찮아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하면서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잊지 못할 또 다른 홈런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김여울기자 wool@

나지완

삼성전 67일만에 홈런 은퇴 선배들에 선물 “타이밍 좋아지고 있어”



체인지업으로 위기관리 1년만의 선발승 유창식 이탈에도 ‘여유’

김진우

매일 새로워지는 ‘호랑이 군단’의 선발진이다. KIA의 선발 로테이션에 변화가 있다. 우완 김진우의 합류와 좌완 유창식의 이탈이 겹쳤다.

김진우는 안정적으로 KIA의 선발진에 합류하게 됐다. 김진우는 지난 13일 안방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6피안타(1피홈런) 8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기록했다. 타자들의 화끈한 화력 지원 속에 7-4로 경기 끝나면서 김진우는 시즌 첫 선발 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됐다.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이날 김진우는 풀카운트 승부를 이어가는 등 중간 중간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볼을 터뜨린 삼성의 타선을 잘 막아냈다. 그리고 팔색조의 매력도 뽐냈다. 102개의 공 중 자신의 주무기인 커브는 9개를 던지는데 그쳤다. 대신 체인지업으로 상대의 허를 찔렀다.

김진우는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 생각이 많았다.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렸고, 힘도 들어가면서 풀카운트 승부가 많았다. 상대가 커브에 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려고 했다. 초반에는 체인지업이 잘 안 들어가서 고민을 했는데 (이)홍구한테 던지다 보면 좋아질 거라고 자신있게 사인을 내라고 했다. 적응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더 좋아질 것이다”고 언급했다.

체력 테스트 불합격, 종이라 근육통 등으로 뒤늦게 시즌을 출발했지만 김진우는 기분 좋게 스타트를 끊으면서 양현종-스

틴슨과 함께 선발 자리를 굳히게 됐다. 김진우로 무게감을 더한 선발진에서 ‘미완의 대기’ 유창식은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다.

지난 12일 삼성전에서 제구 난조 속에 3회도 버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던 유창식은 설상가상 어깨 결림으로 14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중 LG와의 경기에 유창식이 선발로 나설 예정이었다. 평소 LG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내심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던 KIA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상이 됐다. 엔트리에서 제외는 됐지만 큰 부상은 아니만큼 복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혼돈의 선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유창식의 다음 자리는 예측 불가다.

일단 유창식의 이탈로 서재응의 출격 날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기태 감독은 주말 kt와의 경기에서 베테랑 서재응을 내세울 예정이었지만 유창식이 빠지면서 날짜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빈자리를 채울 선발 대기 자원들도 나쁘지는 않다. 불펜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임준혁과 김병현도 선발 가능 자원이고, 2군에서는 좌완 임기준이 복귀를 위한 칼을 갈고 있다.

양현종-스틴슨이 우선 LG전에 나서기 때문에 ‘유창식의 대안 찾기’에 아직 여유는 있다. 선발진의 두 가지 변화, KIA의 고민이 또 시작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손연재 2연패 리듬체조 2연패

손연재가 12일 오후 충북 제천시 세명대 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 리듬체조 선수권대회 종목별 결승 볼 경기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훈, 은퇴시구 ‘스트라이크’... “선수 다시 할까요?”

덕아웃 특·특

▲“볼당번까지 하게 됐어요.” = 볼당번에 이어 볼당번까지 하게 된 홍건희다. 투수조 막내 홍건희는 17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92동기들과 볼당번을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17일이 약속된 마지막 당번 날이었다. 그러나 박준표에 이어 지난 12일 친구 한 승혁이 제구 난조 속에 엔트리가 말소됐고, 14일에는 또 다른 동기 유창식이 엔트리에서 빠졌다. 결국 혼자 남은 홍건희는 “볼당번까지 하게 됐다”며 몸을 챙겨주고 나가야 했다. 한편 다음 주중 LG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을 준비했던 유창식은 왼쪽 어깨 결림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현역 복귀시키자는 이야기도 나오더라.” = 김기태 감독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특급 퍼포먼스였다. 지난 13일 치러진 유동훈과 김상훈의 은퇴식에서 두 배터리는 마운드와 홈 플레이트 사이에 기아 자동차 K5 새 모델을 두고 양쪽 창문 사이로 공을 던지고 받는 시구 퍼포먼스를 했다. 유동훈이 창문

을 향해 던진 공은 반대쪽 창문을 통과해 포수 김상훈 미트로 향했다. 한 번에 스트라이크 존에 쏘인 갑탄사가 절로 나온 멋진 시구. 김기태 감독도 “멋진 퍼포먼스가 나왔다. 현역 복귀시키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웃었다.

▲“다시 할까요?” = 은퇴식 보다 더 긴장이 됐던 시구 퍼포먼스였다. 유동훈 코치는 “전에 한번 날을 잡아서 연습했다. 은퇴식 날도 20개 정도 던져봤다. 세계 던지니까 차에 맞기도하고 그래서 힘 빼고 조심중해서 던졌다. 한편 해내서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묘한 아쉬움도 남았다. 유 코치는 “시합 때는 힘 빼는 것을 왜 잘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야 힘 빼는 법도 알고, 감동받아서 체력적으로도 관리를 잘해주는 것을 보니까 ‘다시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웃었다.

▲“하나 더 낮았으면 못 했어요.” = 김주찬은 지난 11일 넥센 피어밴드의 낮은 커브를 받아쳐 9호 홈런을 기록했다. 이날 피어밴드가 던진 커브는 단 4개. 그중 하나를 홈런으로 만들었다. “하나 더 낮았으면

못 했다”고 9호포에 대해 언급했던 김주찬. 13일 자신의 첫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뒤에도 김주찬의 반응은 “하나 더 낮았으면 못 했어요”였다. 김주찬은 삼성 장원삼의 낮게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견어올리며 홈런을 만들어냈다. 9호 홈런을 쳤을 때보다 훨씬 낮은 궤적의 공이었지만 홈런으로 연결한 김주찬. 김기태 감독이 “그 홈런은 예술이었다. 예술적인, 기술적인 홈런이었다”고 감탄을 할 정도였다.

▲“시간당 100mm 짜리입니다.” = 14일 오후 한바탕 천둥번개가 지나갔던 경기장. 이내 해가 나면서 이상 없이 훈련이 진행됐지만 경기 시작 30분을 앞두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삼성과의 홈경기는 우선 취소됐다. 경기 전 이를 예상했던 이가 있었다. 구름의 이동 모습을 보고 “오늘 무조건 경기 한다”고 한 서재응과 “절대 못한다”고 맞선 김태영. 김태영의 믿는 구석은 레이더 영상이었다. 김태영은 “비구름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이전 시간당 100mm 짜리다”고 큰소리를 쳤고, 그의 예보대로 경기는 우선취소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1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KIA V9의 주역 김상훈·유동훈의 은퇴식이 열렸다. <KIA타이거즈 제공>